

Wildflower Letter

들꽃편지 690

2026.7.7.소서

https://cyw.pe.kr

□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기쁜 소식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서로
짹짹짹 대화를 나눕니다.
"저기 논 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가까이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핸드폰을 안 보잖아."

현대인들은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코를 박고 들여다보며 삽니다. 잠시라도 핸드폰을 안 보면 불안해지는 증상을 '디지털격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카톡을 보내놓고 즉각 답장이 안 오면 안절부절하면서 "감히 내 카톡을 씹어?"라고 분노합니다.

아침에 동네를 돌다 보니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 있던 '우체통'을 폐쇄한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체부가 배달업무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너무 허비한다는 이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체통에 다 쓴 건전지, 폐약, 커피 캡슐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에 밀려 '편지'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들꽃편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띄우는 편지입니다. 성경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寄別)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冷水) 같으니라.'(잠25:25)라고 합니다. 먼 땅에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냉수를 한 모금 드시라고 36년 동안 편지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서(小暑)는 장마철과 겹칠 때가 많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학교는 방학으로 접어들고 직장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게 되니 어쩌면 소서(小暑)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름의 쉼'을 예고하는 냉수와 같은 시원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절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를 하나 따 먹고 기분이 좋은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以實直告(이실직고)

하지만 거짓이나 과장이
진실보다 따뜻할 수도 있다
는 말에는 진심 공감!

전각 글 /예장 이진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담(膽)이 크다.
담이 크다는 말은 겁이 없다는 말이다.
겁은 오감(五感)의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다.
무서운 독사가 등 뒤에 다가와도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겁내지 않는다.
그러다가 뱀을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난다.
주님의 참된 일꾼은 무엇을 보든
그 보이는 것을 꿰뚫어,
또는 그것을 말미암아 주님을 본다.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을 때는 겁이 났다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자 겁이 사라졌다.
무엇을 보든, 어디를 가든,
눈앞에 오직 주님만 계시는데 무엇이 겁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담이 큰 것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81 경비가 왜?

35도가 넘는 뜨거운 한여름에
잔디와 억새 풀이 가득한 아파트 한쪽을 삽으로 뒤엎고
흙을 골라 코스모스 씨를 뿌렸습니다.
더위로 땀이 비 오듯 하여 즐겁게 일을 못 하고 투정 범벅이었습니다.

"경비가 왜 이런 일도 하는 겨?"

늦 가을에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때로는 지나가다 예쁘다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좋아라고 합니다.

"주님, 한여름 온갖 불평을 쏟아내며
코스모스를 심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최용우詩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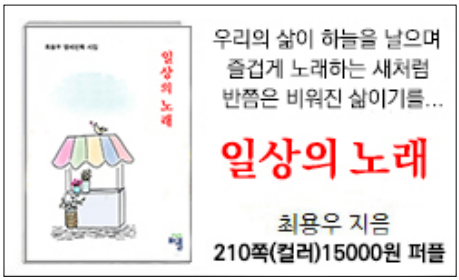
똥 푸는 아저씨
똥통 앞에서
끙끙 일도 잘한다
냄새도 안 나나?

똥 퍼서
자식 대학 졸업시켰어
내게는 밥이 나오는
향기여 향기

최용우 제13시집〈일상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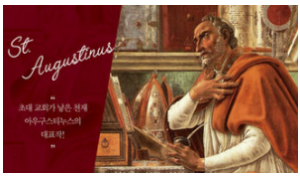


최용우 1-18시집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예수의 구원



383.첫 번째 죄의 성격

가장 처음 두 사람의 죄로 인간의 자연본성이 변질되었다면, 왜 다른 죄들로는 인간본성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 죄의 결과로서 인간의 자연본성은 우리가 보고 느끼듯이 온갖 형태로 부패하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서로 반대되는 여러 감정으로 불안에 시달려 낙원에서 죄를 범하기 전과는 매우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죄가 단순히 먹지 말라고 명령한 음식 때문인 것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잘못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384.나쁜 의지가 악행보다 먼저 있다

최초 인간들은 서서히 악하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드러내놓고 불순종하기에 이르렀다. 나쁜 의지가 앞서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악한 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리라. 그러기에 나쁜 의지의 시초는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오만은 죄의 시작이라”했다.(집회서10:13) 또 오만은 죄의 과도한 찬양을 갈망하는 것이다.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할 근본을 버리고 자기에게 뿌리를 내린 것은 뒤바뀐 우월감이다.

385.오만함은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나쁘다

죄인지 똑똑히 알면서도 어떤 핑계를 찾아 변명하려고 하는 그 오만은 죄악이며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단죄를 받아야 한다. 최초 인간 여자는 “뱀이 저를 꾀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창3:13)라고 했고, 남자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창3:12)라고 했다.

386.따르지 않는 이들이 받는 올바른 벌

인간은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그가 순종에 따른 건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짧고 쉬운 계명을 하나만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겨 정의에 따른 천벌을 받게 되었다. 그토록 바랐던 자유를 끝내 누리지 못하고 달콤한 말로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뱀의 지배 아래에서 잔혹하고 불쌍한 노예의 삶을 살 게 된 것이다. -(계속)

일반계시



1. 일반계시의 특별함

어떤 분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몰랐던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하고 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조선 선조王 16세기는 아직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진왜란의 선봉에 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통해 얻은 무기(조총 등)로 무장을 하고 십자가를 크게 그린 깃발을 펄럭이며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서학이라는 (가톨릭)복음을 조선에 전했습니다.('서학'을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 '동학'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10:10)는 예수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에 의한 구원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다르게 '특별히'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따, 참 보기 좋다'라고 감탄했던 세상은 '일반적인 자연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자연과 인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계시'인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이 눈부신 광휘로 비추이는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일반계시 안에 숨어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법칙)들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별계시'에 비해 '일반계시'가 무시당할 만큼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찌보면 '일반계시'라는 토대 위에 '특별계시'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계시'로도 구원을 받는 방법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8396)

2. 이순신 장군의 구원

이순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 성경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합니다."(롬2:14)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일반계시로 인간의 양심에 새겨주신 선과 의를 따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일반 은총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김세윤(풀러신학교, 총신대)교수는 "이순신 장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반계시,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일반계시에, 자신의 양심에 새겨주시는 참됨, 의로움, 선함에 대한 의식과 요구에 얼마나 순응하여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일반계시, 일반 은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해 너무 좁게 생각하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문제 등과 관계하여 생각할 때는 그것을 사실상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아주 편협하게 인식한다. 구원론의 몇 문장들을 복창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독선적이고 타인들을 정죄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톨릭은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에 보내려고 하고, 개신교는 천국에 있는 사람도 끌어내려 지옥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8397)

3. 타락한 세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즉각 지옥으로 보내버리지 않고 대신 낙원에서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땅은 공중권세 잡은 존재(사탄)들이 잠시 동안 세상 풍조와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곳입니다.(엡2:2)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께서 뱀(사탄)을 심판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세상에서 한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창3:15)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특별한 은

총으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인류 최초의 구속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진노와 긍휼, 형벌과 축복, 심판과 오래 참음, 높은 것과 낮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숭고한 것과 우스꽝스러운 것, 희극과 비극, 진실과 거짓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뒤섞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삶의 진지함과 허영심, 비관주의와 낙관주의,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 눈물과 웃음이 매 순간 같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또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지은 인간에 대한 은혜가 이 세상에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분의 진노로 인해 소멸되지만, 아침에는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된다'(시90:7,시30:5)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은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저주와 축복은 가장 혹독한 심판이면서 가장 부요한 은혜(은총)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패배, 하나님께는 용서의 상징이 됩니다. (8398)

4. 원시와 역사시대

성경을 크게 창세기1-11장까지 '원시시대',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역사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원시시대'는 기록(역사)이 없기에 '원시시대' 또는 '원 역사'라고 합니다.

원시의 시대는 세상의 창조, 인간의 형성, 낙원의 역사와 타락,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선포(창3:15), 공적인 예배(창4:26), 문화의 시작(창4:17), 바벨탑의 건축, 그리고 대홍수 등등 커다란 사건들이 긴 기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전승된 사건들은 매우 부패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각 대륙이나 나라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기원과 시작을 가지고 있으며 넓고 공통된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류의 통일성(Einheit)'과 '공동체성(Gemeinschaft)'이라고 합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신, 조물주,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최고 존엄자를 섬기는(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존재합니다.(창4:3-4) 그리고 예배,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사'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계시'가 정의되지 않은 형태로 온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시시대'는 제1차 '물심판'으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는 찬란한 '역사시대'를 이루기는 했지만, 장차 제2차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천신지'인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낙원의 소문 '소문의 낙원'을 들어보셨습니까? (8399)

5. 무지개 언약

성경은 '대홍수'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으며, 마지막 날에 있을 '대화재(불심판)'과 서로 대칭이 됩니다.(창8:21)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심판이 다시는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며 '무지개'를 그 증거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가진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여(창8:21,창6:5) 결국에는 끔찍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세상을 심판할 일이 또다시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과 자연에 대해 일관되고 항구적인 한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와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피조물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자연언약(自然言約, natuurverbond, foedus naturae)'입니다.(창:21-22,창9:14-16,욥14:5-6,시119:90-91,사28:24....)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 주는 '객관적 환경(무대)'이라면, 자연언약은 그 계시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 주는 '법적·도덕적 관계(질서)'입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가도록 설계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연약'은 자연의 거대한 힘을 억제하였고, 우주와 자연 만물의 현상과 과정들이 일정하고 규칙적이게 했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켜 힘을 빼고 본성을 온화하게 했습니다. 사회는 질서를 부여받았고 법과 규정이 생겨 정부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역사(歷史)'를 주신 것입니다. (8400)

6. 바벨탑 사건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많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아라랏(Ararat)땅에서 살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창9:20) 인구가 증가하면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따라 동쪽으로 시날평야 메소포타미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창11:2) 그곳에서 부와 권력을 얻게 되자 자기들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자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심체를 세워 연합을 유지하고 인간의 권력과 그 힘과 영광을 과시하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전제주의적 이념'을 싹틔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시도를 불가능하게 막아버리셨습니다. 언어의 혼란은 사람들에게 생리학적, 심리학적인 구별이 생기게 했고 사물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서 국가와 민족으로 분열되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행14:16)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자신의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시19:1)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자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자신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행14:16-17)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스스로가 율법이 되어 율법을 행하게 하셨습니다.(롬2:14-15) 이방인들에게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간섭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의식과 이성과 지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요1:3-10) (8401)

7. 타락한 인류

우리는 우리보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하면서 '현대인'들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덜 문명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의 문명이 일어났던 시기마다 그들에게는 의식과 의지, 정신과 이성,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와 종교, 법과 도덕, 가족과 사회, 도구와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늘날의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글만 해도 약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 어떤 인공지능으로도 한글을 능가하는 체계적인 문자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류사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깊은 불만과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관해서 알 만한 것은 하느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하느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로마서1:19-21/공동번역성서)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긴 여정 속에서 인류 문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일반계시'가 큰 가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계시의 빛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8402)

8. 유신진화론

요즘 어떤 교단에서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이단이라며 관련된 사람들을 파면하고 유신진화론자들과 교류를 금지했다는 뉴스로 뒤숭숭합니다. 유신진화론은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입니다. 유신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자 종교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 창조의 방식입니다.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진화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수용한다'는 부분을 성경적이 아니라고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①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계시'와 ②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반계시'가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은 신이 자연(과학)을 통해 계시하는 '일반계시'입니다. 일반계시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지적 능력을 통한 활동의 결과이고, 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한 지식을 얻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현대 과학 중 진화, 대폭발, 지층의 형성 같은 분야의 과학 이론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두 개가 충돌할 수 없습니다.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두 계시에 대한 오해와 아직 연구되지 않은 오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오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와 같은 특정 해석을 절대화하지만 않는다면 '일반계시'를 통해 '특별계시'가 더욱 정확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적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8403)

9. 굽은 잣대질

신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일반계시'에 대한 신학적 주장은 다윗, 사도 바울, 누가의 주장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에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해석할 때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6일 창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나중에 과학적인 진보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지금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석한 내용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고, 그 경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계시의 토대에서 나온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은 신학적 뿌리가 튼튼하고, 과학과 충돌하지 않으며,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세계 성서해석학계에서는 중동지역의 신화적 관점으로부

터 창세기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 유신진화론의 수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칼 바르트 신학'도 유신진화론을 따릅니다.

유신진화론을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그것을 주장하거나 용인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C.S. 루이스의 책들과 팀 켈러의 책들은 금서가 되어야 하고 유진 피터슨, 헨리 나우웬, 달라스 윌라드같은 세대를 거쳐 훌륭하게 헌신해 온 여러 기독교 변증가들을 이단성이 짙은 말쟁이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이 굽은 잣대질을 마구 해댈 때, 과연 현대 복음주의권에 속한 이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들의 이단 결의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전사들을 무력화시킬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복음의 문이 닫힐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8404)

10. 교리 분별하기

개빈 오틀런드는 『목숨 걸 교리 분별하기』(개혁된실천사)라는 책에서 교리를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①등급 기독교 신앙의 본질(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등)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이단'으로 규정한다. ②등급 세례, 침례, 감독제, 장로제와 같은 교파나 교회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리는 서로 인정하며 공존한다. ③등급 성령의 은사나 종말론적 입장 등 어느 한 신학 분파에는 중요하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교리로서 서로 관용한다. ④등급 창조의 세부 방식 등 개인적인 양심과 해석에 맡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교리이다.

'유신진화론'은 ④등급에 해당하며 아무리 중대하게 다루어지더라도 ③등급 정도의 분류에 적당합니다. 창조론이 갖고 있는 무게를 고려할 때 많이 양보해서 ②등급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 이단이라는 가장 무서운 ①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 가혹하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아의 원리'를 언급하며 문자적 6일 창조의 틀을 넘어서는 해석을 했던 어거스틴 마저 이단 판결대에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신진화론'같은 신학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신들의 손바닥만한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박제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여 자기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수구 기득권자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들이 한국 기독교를 다 말아먹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4.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8405)

11. 일반계시의 한계

일반계시 덕분에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합니다. 결혼과 가족, 사회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외부 및 내부적 연대에 의해 인류는 억제되고 견제되어 짐승으로 전락 되지 않도록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일반 은총의 한계 내에서 온갖 종류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재화들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향유합니다. 인류는 일반계시에 의해서 그 존재가 유지되고 그 통일성이 보존되며 그 역사를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일반계시의 빛 아래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의 보화들을 세상은 그동안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변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사(선물), 곧 오성(이해력)과 이성, 사고력과 의지력이 인간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전1:21)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주어진 지혜와 은사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요1:5).

로고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로고스)를 알지 못했습니다.(요1:10)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일반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계시의 한계입니다. (8406)

12. 일반계시의 결과

유일신 야훼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우상숭배와 형상숭배를 합니다. 바빌론 종교는 일월성신을 섬깁니다. 그리스인들은 온갖 신화를 만들어 내서 수 백가지 신들을 섬깁니다. 중국인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인도와 이집트인들은 송아지를 섬깁니다. 일본인들은 인구 수 보다도 많은 1억 가지의 신을 만들어낸 귀신의 나라입니다.('강아지 이빨신'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숭배는 인간과 세계에 온갖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을 퍼트렸습니다.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낸 신들이나 영적 존재들에게 '계시'를 강요합니다. 미신 주술 점술 마술 점쟁이 사제 토테미즘 무당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계시하라고 돈을 바칩니다. 진짜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짜 모형에게서 그것을 찾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일반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반계시로 '심판'하신다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구원'의 심판인지 아니며 다른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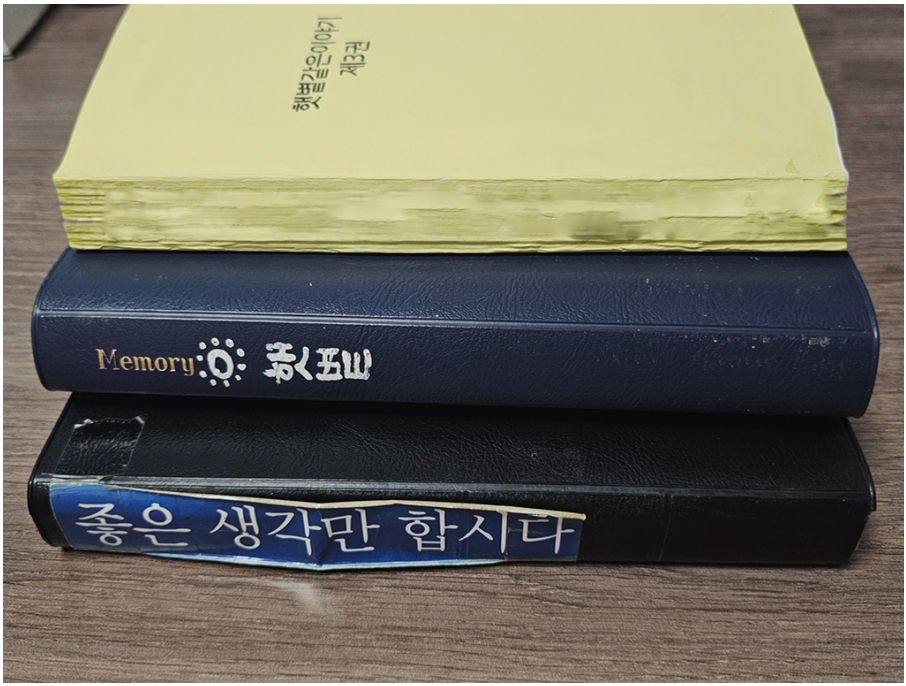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민'인 이스라엘마저 오히려 메시아 예수를 잡아 죽이는 배은망덕의 죄악에 빠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일반계시'로 살아가는 민족들의 타락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끝 (8407) ⓒ최용우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00-350쪽 내외의 책 총27권 중
2026년 현재는 13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가슴을 쫙 펴라!〉 308쪽 11600원 https://c11.kr/06yw
2.〈다시 벌떡 일어나라〉 336쪽 12400원 https://c11.kr/07yw
3.〈정정당당 잘 살자〉 336쪽 12400원 https://c11.kr/08yw
4.〈예수 잘 믿는 비결〉 326쪽 12100원 https://c11.kr/09yw
5.〈가장 큰 선물〉 326쪽 12100원 https://c11.kr/010yw
6.〈인생 최대의 행복〉 316쪽 11800원 https://c11.kr/012yw
7.〈나도 할 말 있다 냐옹〉 318쪽 11900원 https://c11.kr/016yw
8.〈하나님의 얼굴〉 326쪽 12100원 https://c11.kr/018yw
9.〈예수님을 따르는 삶〉 328쪽 12200원 https://c11.kr/023yw
10.〈예수 나의 형통〉 330쪽 12200원 https://c11.kr/027yw
11.〈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https://c11.kr/031yw
12.〈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6쪽 14600원 https://c11.kr/039yw
13.〈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https://vo.la/xYamE





계획표 노트 (사진:최용우)

새로운 13년 준비

〈햇변같은이야기〉는 1995.8.12일 pc통신 하이텔 플라자 큰마을 게시판에 날마다 한 편씩 1만편의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첫 글을 올리면서 시작하였다. 제1243회부터 매일 5편의 글을 신문처럼 편집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문방구에서 가장 두꺼운 노트를 한 권 사서 매일 다섯편의 글 제목을 한 줄로 적었다.

첫 번째 노트는 제1243호부터 4542호까지 매일 한 줄씩 기록했다. 두 번째 노트는 4543호부터 8395호까지 적으니 끝났다. 320쪽짜리 노트 한 권을 13년씩 2권에 26년 동안 쓴 셈이다.

320쪽 똑같은 노트를 쿠팡에서 찾아보니 지금은 없어졌다. 가장 두꺼운 것이 240쪽이다. 신청을 해서 받아보니 맘에 안든다. 이제는 노트도 두꺼운 것은 안 쓰는 시대인 모양이다. 고민을 하다가 똑같은 크기로 편집해서 그냥 프린터로 한 권 뽑아 직접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 13년 동안 쓸 수제 노트이다.

멋진 실패



생일이라고 주일예배를 마치고 '고매스 케어' 뷔페식당에서 함께 가족 식사를 했다. 식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시간에 맞추어 각자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전에 초밥이 많은 쿠우쿠우 식당이었는데 이름과 가격표만 바뀌었지 음식 구성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우선 초밥 60여 종류가 두 줄로 맞추어 쭈루루루... 오늘은 내가 기필코 모든 초밥을 하나씩 다 맛보리라... 끝에서부터 접시에 하나씩 오하열을 맞추어 담았다. 그런데 접시 크기가 줄었나? 왜 이렇게 작지? 사진을 찍으려면 예쁘게 담아야 하는데...

금새 초밥이 접시에 가득 찼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쌓자. 2층으로 쌓았다. 그래도 다 못 담았다. 잔뜩 쌓은 초밥 한 접시에 배가 꽉 찼다. 오늘 못 담은 초밥을 마저 담으러 조만간 다시 한번 와야 하나?

구름일기



망종 지나면서부터 해가 점점 길어지고 북쪽으로 하루에 한 발자국식 이동을 하니 요즘은 오후 6시 넘으면 햇볕이 내 책상 위에까지 직사광선으로 쨍 하고 비추어서 너무 눈이 부시다. 할 수 없이 창문을 반쯤 닫아서 햇볕을 차단한다.

아파트 사이로 해가 넘어가면서 붉게 저녁노을이 지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도 공연장의 음악 연주를 감상할 수 있지만, 현장에 가면 그야말로 완전 차원이 다른 분위기와 감동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핸드폰 카메라로는 저 멋진 모습을 반도 담을 수 없어서 안타깝다.

하늘의 구름은 노을에 반사되어 붉거나 보랏빛으로 물들어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시시각각 빛을 머금고 변하는 구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가 저물어 간다.

아무리 제네시스라도



대평삼거리에 있는 카센터 뒤 공터에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제네시스 한 대가 주차되어 있다. 어딘가에서 사고가 나면 카센터 소속의 렉카가 번개처럼 달려가서 부서진 차를 꽁무니에 붙여 자기 카센터로 끌어다 놓는다.

저 정도로 부서진 차도 수리가 가능할까? 도대체 어디에 박으면 저렇게 부서질까? 우리나라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제네시스인데 비싼 차를 타는 이유는 사고가 나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그런 이유 아닌가? 부서진 제네시스를 보니 아무리 제네시스라도 사고가 나면 별로 안전해 보이지는 않음.

그래도 운전석은 찌그러지지 않은 것을 보니 운전수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음. 뒤집힌 제네시스에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걸어나왔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다.

영역표시



새로 구입한 편백 침대에 작은 십자가 하나를 장식처럼 귀퉁이에 붙였다....가 뗄려고 하니 목공 본드가 굳어서 안 떼어진다. 강제로 떼다가는 침대까지 망가질 것 같아서 그냥 포기.

아내가 "무슨 부적이야? 당장 떼어내셔."라고 했지만 침대에 십자가를 붙여놓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잠자리에 들어 십자가를 보며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십자가'가 가장 먼저 보이면 좋을 것 같은 시각적인 효과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내 침대는 저렴한 버전이라 장식이 없지만, 다른 비싼 침대에는 장식이 붙어 있다. 다른 장식은 되고 '십자가'는 안 되는 이유는 없죠? 문고리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놓은 이유도 문을 열고 닫을 때,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십자가를 한 번씩 보라는 '시청각 효과'겸 일종에 영역표시 같은 것이다.

십자가 목걸이나 벽걸이를 무슨 '우상숭배'니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다. 진짜 우상숭배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다.

최익현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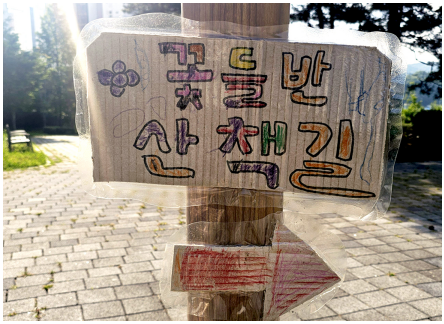
칠갑산 광장공원 높은 곳에 최익현 할아버지가 딱 앉아서 두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내려다 보고 계신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한다. 대한제국을 일본제국과 합병하기 위해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다.

최익현은 이 계약의 부당함을 항소하여 도끼를 메고 광화문 앞에 가서 개항오불가(開港五不可)의 병자척화소(丙子斥和疏)를 올리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들을 도끼로 다 찍어 죽이겠다고 소리친다.

이후 의병대장으로 항일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대마도에 유배되어 일본식 단발 요구에 대한 항의로 단식을 하다가 후유증으로 74세에 사망하였다. 최익현 선생이 청양과 무슨 관련이 있어 저기에 앉아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꽃들반 산책길



주변에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몰려 있어서 항상 아이들이 바글바글. 과연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는 말이 안 믿어질 정도이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어린이집들 간에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나는 아직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라..."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다른데? "소속이 다르다고오, 우쒸~"

가끔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줄을 맞춰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꽃게처럼 자꾸 옆걸음질을 하는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선생님들이 초긴장을 하는 모습을 본다. 아마도 그렇게 공원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들에게는 '산책길 걷기'인 모양이다. 귀엽다.

십자가 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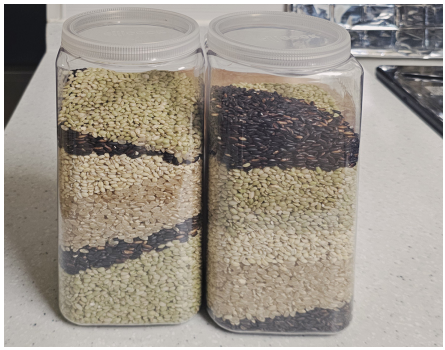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샀다. 여기저기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세대주의자들은 십계명 제2계명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출20:4-5)라고 했다며 심지어 '십자가'도 형상 취급을 하여 십자가를 벽에 걸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형상'이라기 보다는 '상징'이다. 동방 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와 가톨릭에서는 세례 견진성사 때 개인에게 '자기 십자가'를 준다. 그리고 성찬례 참석할 때 그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다.

영화에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여 귀신을 쫓는다거나 하는 설정 때문에 십자가가 오해를 받지만 그건 그냥 영화일 뿐, 실제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우리나라 꽃을 '무궁화'라고 하듯이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상표)같은 것일 뿐이다.

잡곡층



"식당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밥그릇에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비운다.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면 저절로 침이 꼴깍!

우리 집 집밥은 그녀가 건강을 생각해서 온갖 잡곡을 넣어 지은 잡곡밥이다. 아후~ 콩도 왜 이렇게 많이 넣는지... 그래서 몸에는 좋지만 솔직히 입에는 너무 거칠다. 그래서 가끔 식당에 가면 나오는 하얀 쌀밥이 밥에 기름칠한 것 맹키로 술술 넘어간다.

어린 시절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했던 꽁보리밥의 기억, 평생 먹을 보리쌀 초등학교 이전에 다 먹었으니 이젠 안 먹을래. 그래서 아내가 '보리'는 좀 많이 빼주어서 먹기가 그래도 수월하다. 온갖 잡곡을 통에 넣고 막 사진을 찍기에 뭐여? 얼떨결에 나도 한 장 찍었다. 잡곡을 남편에게 팍팍 먹이며 그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즐길 생각에 기분이 좋은 마누라님! 그래도 이뻐ㅠㅠ 흥!

방석 마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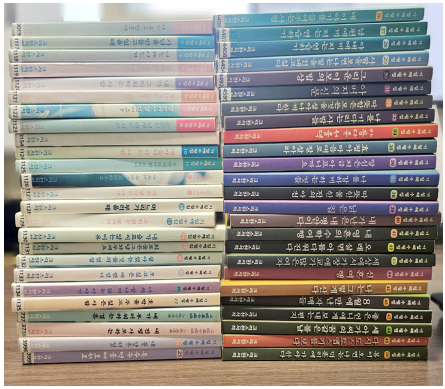
갑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 교회에 못 나가게 되면서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어디 다른 교회에 다시 나갈 때까지 잠깐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주보를 보니 벌써 318주나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다.

보통은 아내와 단 둘이서 드린다. 가끔 가족들이 와서 예배에 동참할 뿐,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없다. 마태복음18장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두 사람이 모인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은 '세상에서가장작은교회'이다.

그래도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 방석 5개를 사서 깔아놓았다. 성경책과 주보를 함께 놓을 때마다 "주님, 이 자리의 주인이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소서."하고 기도한다.

기일혜 수필집 50



드디어 그녀가 기일혜 수필집 50권을 다 읽었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어느 날 그녀가 "내년에는 뭔가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해서 목표달성을 해보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그래서 "책 읽으셔. 무작정 읽지 말고 한 가지 시리이즈를 순서대로 읽어봐요. 토저 목사님 책 38권 도전? 오께이?"

그녀는 토저 목사님 책은 너무 강해서 감당이 안 된단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기일혜 수필집'을 소개해 주었다. "나랑 고향이 같은 '장성' 분이야. 어릴 적 황룡강에서 놀았는데 글에 고향 이야기가 나오니 좋더라구." 그렇게 아내는 기일혜 수필 읽기에 도전했다. 그리고 드디어 2년 6개월만에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나오며 "50권 끝!" 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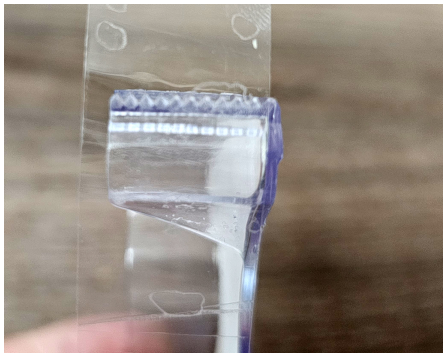


커피 한잔 타서 들고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16층 아래로 세상이 내려다 보인다. 가장 먼저 놀이터가 보인다. 한낮에는 햇볕이 쨍쨍하여 아무도 없지만, 해 넘어가는 해름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소리가 시끌시끌하게 들린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어서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와서 노는 것 같다. 옆의 해들마을에 사는 고등학생도 지름길인 아파트를 가로질러 학교와 집을 오고 가면서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 간다.

밤 10시 넘어 잠결에 들으면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놀이터에 모여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얘기 소리가 위에까지 올라온다.(얘들아~ 다 들려~) 우리가 땅에서 하는 얘기들도 아마 하늘의 하나님 귀에 다 올라갈 것 같다.

누가 바보인가



스카치테이프를 가위로 잘라 쓰는 것을 보고 그녀가 "스카치테이프를 그냥 잘라 쓰지 왜 가위로 짤?"

나: "긍깨 내 말 좀 들어봐, 다이소에서 스카치테이프를 하나 사 왔는데, 상식적으로다가 생각해서 짤르는 톱니가 스카치테이프 보다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녀? 근데 테이프가 더 넓어서 끝부분이 안 짤리고 늘어난다니까... 이거 만든 놈들 바보 아녀?"

그녀: "아이고 이 순진한 냥반아, 잘 보고 이런 '차이나'는 안 사왔어야지. 사 온 당신이 바보야."

나: "아녀~ 내가 바보가 아녀~ 맹그른 놈들이 바보지..."

그녀: "그런 걸 산 사람이 바보인겨~"

나: "맹그른 놈들이 바보랑께~"

그 뒤로도 바보들처럼 한 참 바보 논쟁을 계속했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751회 원수산(251m세종) 2026.6.1.

▲제752회 칠갑산(561m청양) 2026.6.8.

▲제753회 월악산(영봉1,097m제천)



아침 6시30분 집에서 출발 신륵사 주차장에 5분전 9시에 도착했다. 9시 정각에 5명이서 등산을 시작했다. 신륵삼거리를 거쳐 12시를 전후로 모두 영봉에 오르니 과연 악산 월악산이고 신령한 영봉이다.

마지막 영봉으로 올라가는 110m 정도의 수직 코스는 월악산 등산의 절정이다. 과거에는 로프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사고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는 철계단을 만들어서 한결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정상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한 다음 차를 가져온 나와 송목사님은 신륵사로 뒤돌아 원점 회귀하고 두 분 사모님과 이 목사님은 영봉에서 계속 직진하여 보덕암으로 하산했다. 신륵사 주차장 도착하니 오후 2시21분이다. 5시간 21분 동안 7.1km를 걸었다. 나중에 들으니 보덕암 방향으로 하산한 팀은 오후 4시에 도착 휴식시간 포함 장장 7시간을 걸었다고 한다. 2026.6.16.

▲제754회 비학산321 (일출봉252m) 2026.6.25

▲제755회 주미산(배꼬리산381m 공주) 2026.6.29.

산의 모양이 배를 닮았다고 해서 배 주(舟)자와 산의 꼬리에 해당하여 꼬리 미(尾)를 써서 주미산이다. 금학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주미산까지 왕복 5.8km 2시간 32분 걸렸다. 호수를 내려다보며 지그재그로 길을 내고 곳곳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기에 산행이라기 보다는 산책같은 느낌으로 지그재그로 전망대마다 들려서 전망을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①우풍순조 녹음방초 염천지절 탁족지청

소서 무렵 시작된 장마에 비가 순조롭게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우순풍조(雨順風調)붑니다. 이제 세상은 온통 나뭇잎이 무성해지고 들판에 풀이 우거지는 싱그러운 녹음방초(綠陰芳草) 여름 풍경을 보여 줍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오르는 여름, 타는 듯이 무덥고 뜨거운 염천지절(炎天之節)에는 옛 선비들처럼 맑은 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지청(濯足之淸)이 제격입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용수천 뚝방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심은 금계국 꽃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길 위에까지 고개를 쑥 빼고 아는 척을 하네. 너희들은 이 하얀 금을 넘어오면 안돼. "그건 사람들이 쳐놓은 금이지요."

그렇구나. 너희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금을 그었구나. 자연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례하구나. 미안하다. (사진:최용우)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기도에 관한 153개의 글〉(필3) 180쪽(컬) 15000원 2026.6.29.
104권. 일상의 산책 (詩18) /210쪽(컬러) 17000원 2026.5.28.퍼플
103권. 만사록5권-지옥 /304쪽 16000원 2026.4.29.퍼플
102권. 누가 예수어록 /632쪽 28000원 2026.3.20.퍼플
101권. 시편으로 쓴 시편시 (詩17) /404쪽(컬러)27000원 2026.2.27.퍼플
100권. 하늘일기 (일기17) /396쪽(컬러)27000원 2026.1.30.퍼플
99권. 일상의 여유 (詩16) /210쪽(컬러)17000원 2025.12.22.퍼플
98권. 만사록4권-성경 /304쪽17000원 2025.11.21.퍼플
97권.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2) /256쪽(컬)19000원 퍼플
96권. 여름 묵상 (계절2) /218쪽(컬러)17000원 2025.8.8.퍼플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9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6.6월 재정결산

2026년 6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김한빛 박근식 박승현 배지윤 양회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한주환 함안중앙교회 들꽃교회 안디옥교회 월간새벽기도 정릉교회

22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사역 -인터넷신문 햇볕같은이야기 2026.7.7일까지 8425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출판사역 -그동안 105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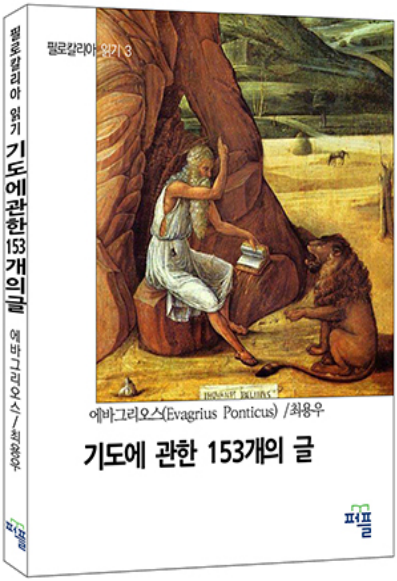
④기도사역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피정사역(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피정사역을 위한 특별 후원헌금 구좌 /우체국 100347-02-096053(이인숙)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새로 나온 책

필로칼리아 읽기 3

독수도자 에바그리오스(Evagrius Ponticus)와 최용우의 대화

기도에 관한 153개의 글



저자/ 에바그리오스 최용우
출판/ 2026.6.29
종교 〉 기독교(개신교)
책사이즈/ A5 국판(148x210)
180쪽 /판매가 15,000원 /교보문고 퍼플
ISBN: 978-89-24-154115

필로칼리아(Philokalia)는 그리스 정교회의 여러 수도원들마다 개별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내용이 심오하고 신비롭고 교훈적이어서 수도원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양하게 읽혀졌습니다. 저는 필로칼리아를 자주 들여다보지만 내용이 어렵고 단어가 생소하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고려수도원에서 관상아카데미과정을 통하여 필로칼리아를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하였습니다.

에바그리오스는 사막에서 구전(口傳)으로 내려오던 수도승 전통과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통합하여 독특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저술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는 '단장(短章)'은 스승의 '한 말씀'에 의존하는 사막 수행 전통과 세련된 그리스 철학을 결합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도에 관하여(On Prayer)〉는 에바그리오스의 '단장(短章)'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에바그리오스는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기도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요21:11) 에바그리오스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사랑의 바구니(글)에 담아서 153개의 문장의 형태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일상의 노래

새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날기 위해서 위장의 반만 채운다고 합니다. 나의 삶도 새처럼 노래하며 반쯤은 비우고 가볍게 살고 싶습니다. 새소리처럼 맑고 청명하며 담백한 詩집 입니다.
210쪽(컬러)15,000원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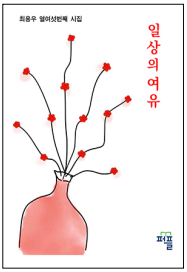
야단법석

가만히 귀 기울이면 사람만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물들이 온갖 야단스러운 소리를 내는데 언어가 없는 사물들은 의성어로 야단법석을 떤다. 그렇게 법석 떠는 소리를 들어보았다.
210쪽(컬러) 15,000원 퍼플



일상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람'이라, 사랑은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소소한 사랑의 순간들을 찾아 적어 본 담백한 詩집 입니다.
210쪽(컬러) 1,7000원 퍼플



일상의 여유

뭐가 그리 바쁘세요? 바쁘게 사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1년은 10월인데 사람들이 하도 빨리 살아서 2개월을 더 붙여 놓은 거래요. 일상에서 여유로운 순간을 찾아 적어 본 담백한 詩집 입니다.
210쪽(컬러) 1,7000원 퍼플



시편으로 쓴 시편詩

성경 시편을 읽으며 시편이 주는 시의 여운을 받아 시편 저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 내 말로 나만의 시편을 써 보았습니다. 시편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나의 시편 고백 詩집 입니다.
404쪽(컬러) 27,000원 퍼플



일상의 산책

세상 삶을 산책하듯 살아가면 여유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을 찾아 적어본 담백한 詩집 입니다.
210쪽(컬러) 1,7000원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WildflowerLetter)제690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